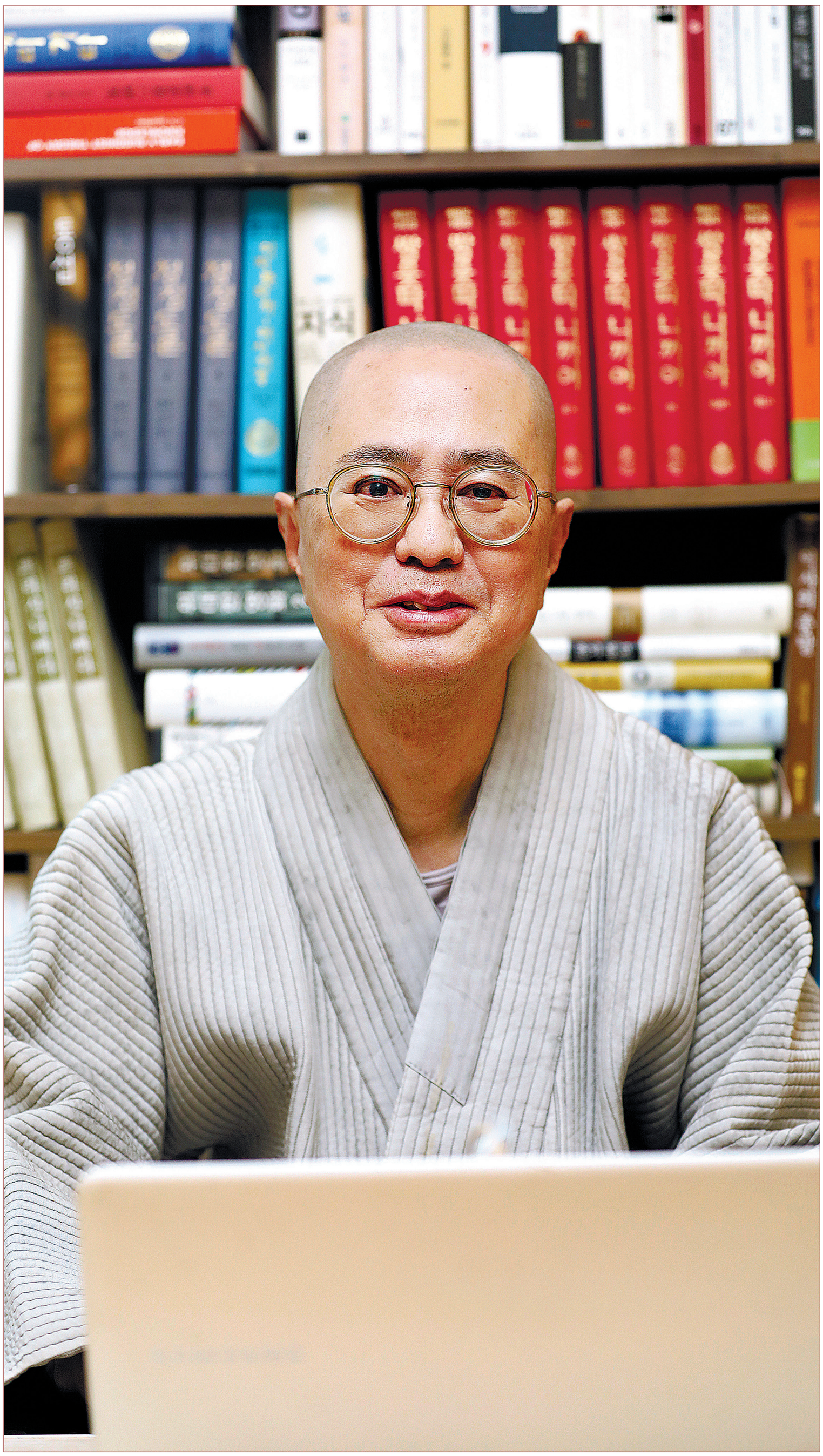
“왜 그러한가?”… 韓불교에 던지는 비판적 질문



테마人 성법 스님 세존불교학술연구원장

글=신성민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20여 년 전 유명했던 TV광고의 한 대목.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친구. 그 친구가 좋다.” 지금 없어진 증권회사 광고지만, 당시 세간에서는 제법 유명세를 떨쳤다.

왜 유명했을까. 일반적으로 한국사회는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생각해 반대 입장을 이야기하기 어렵기 마련이다. 그런 상황에서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보다 훨씬 경직됐던 당시 파격에 가까운 행동이었기 때문이다.

기실 집단은 ‘애빌린 패러독스(Abilene paradox, 이의를 제가하는 사람이 없으면 반대 의견이 없다고 생각해 다수가 침묵하는 현상)’를 경험하기가 쉽다. 이는 일반 세속의 조직문화뿐만 아니라 종교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교조의 가르침이라고 내려오는 교리나 사상들에 의문을 갖는 것은 불경한 것으로 치부되기 쉽다.

하지만 인류사에 족적을 남긴 성현들은 기존 문화에 ‘아니오’와 ‘왜?’를 화두로 던진 인물들이다. 부와 명예가 보장된 삶을 버리고 출가 수행자가 된 석가모니 부처님 역시 기존 관습과 바라문교에 꾸준한 의문을 갖고 파격적 행보를 보였다. 확고했던 카스트 제도를 무시하고 출가 순서대로 사제 관계를 정리했고, 금기됐던 여성출가를 허용했다. 부처님은 잘못된 집단사고와 가르침에 ‘왜’라는 비판적 질문을 던지고 ‘아니오’라고 말한 뒤 자신의 법을 정립하고 포교한 것이다.

“무엇이 불설인가” 고민을

굳이 서설(序說)을 이같이 풀어 놓는 이유는 이번 인터뷰이도 평소 ‘네’보다는 ‘아니오’를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무엇이 불설인가”라는 화두를 한국불교에 끊임없이 던진다. 바로 세존학술연구원장 성법 스님의 이야기다.

불교경전총론 세존사이트의 운영자로도 잘 알려진 성법 스님은 최근에는 ‘세존학술총서’를 발간하며 세계 유명 불교학자들의 연구 성과들을 번역 · 출간해 국내에 알리고 있다.

지난해에는 이시이 슈도의 〈송대 선종사 연구〉와 존 매크래의 〈북종과 초기 선불교의 형성〉이 발간됐다. 올해에도 G.C.판데의 〈불교의 기원〉과 폴 윌리엄스의 〈대승불교-교리적 토대와 성립〉이 나왔다.

특히 〈북종과 초기 선불교의 형성〉은 2018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 학술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국불교에 논쟁점을 제시한다. 존 매크래는 초기 선종사를 다루며 북종과 남종부터 신수 · 혜능의 법통 문제 등에 새로운 주장을 내놓는다. 오조 홍인의 문하에서 신수와 혜능은 동시에 공부하지도 않았고, 전법이 이뤄지는 말년에는 신수와 혜능 누구도 홍인과 같이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저자는 “전등에 관련한 전설이 초기 선불교의 중요한 발명품”임을 연구자들이 상기할 것과 전설과 역사를 구별할 것을 주문했다.

불교를 조금 접한 불자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육조 혜능의 전등담이 ‘허구’라는 것이다. 이 같은 비판적 문제 제기와 논쟁이 성법 스님이 추구하는 지점이다.

“제가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불교가 역사적으로 잘 구현됐는가’입니다. 저는 이 같은 의문을 경전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경론에 근거없이 맹목적으로 요구하는 믿음이나 수행을 부정합니다. 저는 세계 최고의 석학들의 연구들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한국불교 내에서 전통의 ‘불설 교학’이 바로 서길 바랍니다. 또한 발간되는 총서를 통해 활용도 높은 현대의 논장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이 같은 스님의 지향점은 통렬한 한국불교의 비판에서 비롯된 것이다. 몇몇의 저서 등을 통해 한국불교의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왔다. 이번에 발간한 학술총서 간행사에서의 지적도 날카롭다.

“현재 한국불교는 승가를 이끌 걸출한 수행자를 배출해 내지 못하고 있다. 〈중략〉 이는 승가가 선 수행자는 문자에 의지하면 안 된다는 그릇된 전통에 집착한 나머지 경전까지도 가까이하지 못하도록 방임했지만, 실제로는 선 수행을 통한 ‘경지’에 도달한 수행자마저 배출하지 못한 진퇴양난의 결과이다.”

‘맹목 · 無정체성’에 흔들리는 불교

총서들의 간행사와 저서들의 비판에는 불교에 대한 애정이 담겨있다. 그래서 성법 스님의 비판을 더 자유롭게 들어봤다. 스님은 비판없는 맹목적 추종에 알레르기 반응과 같은 강한 거부감을 표했고, 직관만을 강조하는 현재 불교의 수행문화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한 통불교도 아니고 선이라는 종파불교도 소화하지 못하는 한국불교의 모호한 정체성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성법 스님은 일종의 예시를 들었다. 종이 한쪽에 완벽한 검정이 있고, 다른 한쪽에 완벽한 하양이 ‘바림(gradation)’의 형태로 표현돼 있다. 완벽한 하양이 부처님 재세 당시 불교라면 검정은 현재의 불교다. 실제 2000여 년 동안 불교는 세계 각국으로 전래되면서 중관, 유식, 천태 등 다양한 종파 사상이 만들어져 왔다. 어디까지나 시간 변화를 통해 든 예시다.

“2000여 년 동안의 변화에서 약 100년 동안의 변화는 크게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지역별 거리 차이도 있었고요. 지금은 다릅니다. 총체적인 조망이 가능합니다. 중관에는 어떤 문제가 있으며, 유식은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등등의 비판적 논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불교는 모든 것을 비판 없이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통불교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B2면에 계속

세존학술총서 발간 원력

세계 수준의 불교학 연구 성과들
지난해부터 번역… 총서로 발간
매크래 교수 저서는 우수도서로
목표 30권이지만 1차로 10권만
30대 불자 시주로 나온 결과물
“외형적 불사보단 법보시 중요”

경전총론 세존사이트에 대해

경전 전산화 기치로 2001년 제작
經총론부터 미술 · 과학 연계까지
웹페이지만 15만여 페이지 상회
각 게시판 운영하며 대중과 토론
폐쇄 위기 겪었지만 현재는 운영

성법 스님은… 20세에 출가해 동국대 불교대학원을 수료하고 현재 고양시 용화사 주지로 있다. 2001년부터 경전 전산화 불사의 원을 세워 초기불교부터 대승경전의 다양한 해설까지 아우르는 불교경전총론 세존사이트를 만들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는 세존학술연구원을 창립해 세계 최고 학자들의 연구들을 번역 · 소개하는 ‘세존학술총서’ 불사를 진행중이다.

INSIDE

B3 조준호의 미얀마 수행처 이야기 마하시 선원 역사
B5 문화 임효 작가, 블룸비스타 초대전
B6 학술 성보문화재硏 ‘대형불화 정밀조사’ 보고서